

# 한국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greement on the Korean Proverbs about  
Parent-Child Relations, Families' Environment, and Familism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조복희  
강사 안선희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이영환  
강사 이진숙

Dept. of Housing, Child, & Families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Prof. : Bok Hee Cho*

*Instructor : Sun Hee Ahn*

Dept. of Home Management, Chun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ung Hwan Lee*

*Instructor : Jin Sook Lee*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environment, familism, and the agreement on the parent-child relations as depicted in Korean proverbs to find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values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sample was comprised of 474 Korean married people. They were asked to rate the degree to which they agreed on the underlying value of each proverb.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mailed questionnaire and interview.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responses of subjects varied as a function of families' environment and familism variables. More specifically, while the subjects living with extended family were more likely to rate the value toward children and daughter high, the subjects from nuclear family were more likely to express the affection toward children, to prefer boys, and to express child-rearing stress. In addition, the people who had lived with grandparents together tended to agree with the value of filial piety. The respondents from conservative surroundings were more likely to express the affection toward children and to prefer boys. The

subjects from a rural community tended to prefer boys and to place high value on the authoritative control. The people who supported familism tended to express the affection toward children and child-rearing stress, to prefer boys, and to agree with the filial piety and authoritative control. But they tended to rate low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daughter.

## I. 문제제기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영구적인 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화의 기본적인 교육의 장인 가정환경중에서도 인적인 환경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은 사회 문화라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변천으로 인해 가족 구조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 부모의 책임과 역할 등 부모-자녀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및 가치 체계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여 왔다. 가문과 혈연 중심의 농경 사회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로 바뀌면서 인간관계의 규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외형적 구조와 가족 구성원들간의 내적 관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 사회의 가족 구조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다른 모든 관계선의 성격이 규정될 만큼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자관계가 중심적인 관계였다. 전통가족구조의 부-자관계는 수직적 관계구조였으며 효라는 이념에 근거한 지배와 복종관계였다. 그러나 현대 가족 구조에서는 부모-자녀간의 평등한 관계가 보다 이상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서구문화와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와 육아방식이 변모해 왔음은 주지할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한 사회변화과정에서 가족의 변화양상, 특히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가 오늘날 어느 정도로 수용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중의 생활철학과 가치를 담

고 있는 속담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 속담은 우리 생활속에 남아 있는 전통적 가치관의 연속과 단절, 그리고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속담은 시대적 산물이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멸하면서 다른 어떤 것 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한국사회의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구전되는 속담가운데는 공감받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시대의 속담이 많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변화된 가치 및 사회상을 반영하는 속담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1차적 의무는 다산이었고, 그 중에서도 남아의 다산을 바람직하게 여겨 남아의 출산을 조장하고 가치를 두는 속담(예: 다남은 천복이다)이 많았다. 산업화과정에서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구호와 함께 관주도적으로 가족계획이 실시되었으나, 오늘날 '아들은 해외 여행시켜 주고, 딸은 달나라 구경시켜 준다'는 속담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다남에 대한 변화된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속담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민중에 의해 공유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속담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인식정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인(예:성별, 학력, 연령, 종교등)과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를 밝힌 연구(조복희, 이진숙, 1998)에 이어 가족환경(가족유형, 출신지역, 가족 및 지역의 분위기,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및 동거기간)과 가족가치관에 따라 각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이 가지는 가치나 의식은 그들이 속한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환경이나 가족가치관에 따라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는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의미에 대한 동의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교적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는 조부모세대나 부모세대와 동거하거나 전통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전통적 가치를 내포하는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됨에 따라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배하는 윤리중의 하나인 가족주의적 특징의 일부는 그대로 존속되기도 하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다른 어떤 집단보다는 가족(집)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가 일부 남아 있어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우리 생활의 주요 규범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가족가치관의 정도와 전통사회의 부모-자녀관계의 가치를 내포하는 속담에 대한 지지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전래되어온 속담의 실제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 대중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조망하고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올바른 부모역할관을 새로 정립하고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 첫째,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동의정도는 가족환경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동의정도는 가족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속담의 개념 및 특징

속담은 평범한 일반 민중으로부터 식자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향유되어온,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민족적 언어 예술이다. 대부분 서민들의 입을 통

해 구전되어 온 속담은 삶의 지혜나 교훈을 비유적·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훌륭한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이기문, 1992). 속담의 개념을 단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교훈이나 풍자를 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비유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비교적 간결한 관용어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p. 81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속담이란 일반적으로 간결한 형식 속에 은유로서 민중의 생활 철학을 담은 사회적 소산으로, 향토성과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태곤 외 6인, 1996; 장덕순 외 3인, 1971). 첫째, 간결한 표현이다. 속담은 짝 짝여 있는 토막말로서, 이러한 단순성·간결성으로 인해 화자가 쉽게 구연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지적·정적 충동을 줄 수 있다. 둘째, 비유적 표현이다. 속담은 추상적·보편적 진리를 구체적인 사실로 비유하여 표현한다. 셋째, 수사상의 기교가 다채롭다. 속담이 상대의 관심을 끌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간결한 형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강조법이나 비유법 등 수사학상의 다채로운 기교가 따라야 가능하다. 넷째, 사회적 산물이다. 구비문학이 다 그렇듯이 속담도 공동작이다. 비록 처음에는 창안자가 있었겠지만 창안 그 자체만으로는 속담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언중에 의해 다듬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중의 다수가 사용해주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상의 반영이다. 속담이 사회적 공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속담의 내용을 언중이 공명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언중이 공명 공감한다는 것은 그 속담이 그들의 생활경험을 반영하였거나 생활경험과 어울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언중의 생활경험은 곧 그 시대의 사회상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담은 사회상을 반영한다 하겠다. 여섯째, 도덕적·교훈적이다. 속담은 언중 대다수의 경험 이를테면 보편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도덕적·교훈적이다. 즉 속담에는 민중이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얻은 경험의 정수가 담겨 있으므로 거기에는 얕고 깊은 인생이 모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어떠한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 그렇게 되는데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다.

## 2. 속담에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속담은 민중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사고의 반영이자 그 표현이다. 그런데 문제는 世人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사상을 포괄, 혼용한 것이라기 보다 개별적이고 특정한 경험이나 사고를 즉흥적이고 단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즉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는 돌아 누우면 남남'에서 처럼 동일한 대상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의미지향을 가진 속담이 많다든지, 속담의 특성으로 수의성, 편의성, 일면성 등을 들고 있는 것은 앞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김태곤 외 6인, 1996: p. 386).

실제에 있어서 속담은 일상의 생활환경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이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속담을 나란히 대비해 놓고 보면 서로 상반되는 기본의미 또는 함축의미를 나타내는 수가 있다. 예컨대, '병신자식 고운데 없다 / 병신자식 효도한다', '그 애비에 그 자식 / 애비는 애비, 자식은 자식' 등 한쌍의 속담들은 그 표면의미를 어느 정도로 추상화시키며, 또 현 상황에서 어떤 함축의미를 가지느냐 하는데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속담의 의미가 논리적 모순을 부담없이 함께 거느림은 보편 타당한 진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단면을 그때 그때마다 편의대로 노출시키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pp. 814-815).

이처럼 속담이 인간사의 단면을 상황에 따라 편의대로 노출시키기 위해 쓰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속담의 경우에도 전통 사회의 부모-자녀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녀의 가치나 부모노릇하기에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의 전통가족에서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가족관계의 중심축을 이루었으

나 실제로 우리네 속담에는 다산의 가치 및 자녀의 긍정적 가치에 관련된 속담('아이들이 아니면 옷을 일 없다') 뿐 아니라 자녀와 가치의 부정성('품 안에 들 때 자식이다')을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아의 가치에 관련된 속담('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뿐 아니라 딸에 대한 애정과 가치를 보여주는 속담도 있다('만딸은 살림밑천이다', '딸 손자는 가을벌에 놀리고 아들 손자는 봄벌에 놀린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까마귀도 제자식은 예쁘다고 한다'), 부모노릇의 어려움과 부질없음을 묘사하는 속담도 나타난다('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 '자식은 애틀이라'). 이외에 자녀교육의 중요성 및 부모 모방, 훈육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으며, 전통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하여 효에 관련된 속담('자식을 길러 보아야 아버지 공을 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3. 부모-자녀관계 속담과 관련변인

### 1)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인식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속담을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국문학, 민속학, 교육학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왔으며,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속담을 분석한 연구는 그동안 한편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부모-자녀관계 속담만을 추출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정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실증연구(조복희, 이진숙, 1998)가 진행되어 왔다. 조복희와 이진숙(1998)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속담을 9개 하위 영역(자녀의 가치, 자녀에 대한 애정, 남아선호, 딸에 대한 양가감정, 자녀교육의 중요성,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부모동일시, 절도있는 훈육, 효)으로 분류하여 이들 각각의 속담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정도나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성별, 연령, 학력, 종교별로 동의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가치에 관련된 속담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율이 낮았으며, 자녀의 긍정적인 가치(예: 아이들이 아니면 옷을 일이 없다)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 뜻을 받들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반영하는 속담(예: 자식은 품안에 들 때 자식이다)에 대한 인식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자녀의 가치에 대한 동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반영하는 속담들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는 전체 응답자의 95%이상의 인식율을 보였다. 연령이 50대 이상이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헌신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아선호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과 딸에 관련된 속담의 인식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만딸은 살림 밀천이다'와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라는 속담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50대 이상의 해방전 세대가 높은 동의를 보여주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그 동의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아의 가치와 애정을 반영하는 속담에는 해방전 세대와 해방 후 세대간의 차이가 나타나, 해방후 세대가 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의 부모 동일시를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중에서 '맹모삼천'이 부모의 동일시를 나타내는 속담 가운데서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가 가장 높았다. 교육의 중요성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모의 동일시는 연령에 따른 동의정도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다. 양육의 어려움을 담고 있는 속담 중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와 '자식은 애틀이' 등이 90% 이상의 인식율을 보인 속담이었다. 특히 사회적 혼란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의 자녀를 키우는데 평생을 헌신한 50대

이상의 해방후 세대가 자녀양육이 힘들고 부질없는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왔다.

훈육에 관련된 속담에 대한 인식율이 50% 정도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미운 애한테는 엿을 주고, 귀여운 애한테는 매체를 준다' '회초리 아끼면 자식 버린다' 등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는 속담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교나 불교를 믿는 경우에 동의정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효의 권면 및 실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의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식을 길러 보아야 어버이 공을 안다'와 '긴병에 효자 없다'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속담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가지는 배경변수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는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과 부모-자녀관계

가족환경중에서도 가족유형은 한가족이 독특한 가족문화, 전통, 규범 및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구조적 조건을 주는 환경으로서 가족내 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 빈도 및 강도와 개개인의 의식 및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상황에서는 부모세대와 자연스럽게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전통적 문화를 전달받을 수가 있지만 핵가족 유형에 속한 구성원은 이러한 기회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어, 핵가족 환경은 전통 문화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유안진, 1995). 또한 우리의 가족문화에서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문화적인 의미나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는 등 손자녀의 훈육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손자녀의 전 인생주기에 걸쳐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손자녀에게 인생을 통한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며 가족문화를 전승한다고 한다(서동인, 1996). 이와 같은 이유로 가정 내의 조부모나 부모세대의 존재로 인하여 자녀와 손자녀에게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의식은 자

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을 골자로 하는 효사상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세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절대 도덕규범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나 조부모세대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효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 정신적인 가치로서 효를 소중하게 여길수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세대들은 유교적 가족주의 시대에서 가족적 유대나 가족가치관을 생명처럼 여겨온 부모밑에서 자라 온 집단이자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보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할 수 있으며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식의 더러는 체벌도 정당화하는 엄격한 훈육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와같이 유년기 시절에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핵가족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 보다 더 전통적인 부모-자녀관을 가질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어 가족유형별로, 조부모와 동거유무와 기간에 따라 오랜시간을 두고 전승되어 온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을 통해 전통적 가치의 단절과 연속을 규명해 볼 수 있겠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촌가족은 도시가족에 비하여 전통적인 가치규범이 더 많이 보존되어 있는 반면 근대적인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는 도시가족이 농촌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이광규, 1983; 한남제, 1994). 즉, 보수적이고 전통성이 강한 농촌가족은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시하고, 가부장적인 특성이 강하여 남성이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여아에 대한 가치와 애정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가족과 도시가족을 비교한 연구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아들이 많을수록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훨씬 다산을 가치롭게 여기는 자녀의 가치면에서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한남제, 1984). 한편, 도시가족은 물론이려니와 전통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농촌가족일지라도 그 지역의 분위기나 도시화의 정

도에 따라서 전통적인 성격을 점차로 상실하게 되고 도시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도농간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요소의 전통적인 잔재가 남아있으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가족중심주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교적 가치체계로 개인보다는 가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가족 우선적 가치지향성과 지위와 역할에 따른 가족 내의 위계적 인간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가족윤리라고 할 수 있다(서선희, 1995). 가족주의 가치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 사회의 기본적인 사상이며 가치로 기능한다고 보고되지만(옥선화, 1989), 최근들어 가족제도의 변화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우리 고유의 가족가치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전통적인 유형에서 근대적인 유형으로 바뀌는, 즉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남제, 1994). 이러한 과도기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태도와 한국 전통사회의 결혼관행인 동성동본의 불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인 관습이 내재되어 있는 부모-자녀관계의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기대된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찬성하는 입장은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전통적인 가치도 중요시할 것으로 유추되며, 특히 효행을 골자로 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할수록 효의 권면이나 실천을 담고있는 속담에 대한 공감 정도는 높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가족환경이나 가족가치관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의미를 내포한 우리나라 속담에 대한 수용정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하는데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이들 변수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여 가족환경과 가족가치관에 따라 전통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의 속담에 대

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실제로 현대를 살고있는 부모들에게 부모역할의 정립과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속담의 세대별 동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젊은층에서 노년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유의표집하였다. 학력과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전체의 반수 가량의 응답자는 질문지로 수집하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대상에게는 면접법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우편 질문지와 전화 면접으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조사는 1997년 10월 10일 ~ 10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배부된 총 600부의 질문지 중 495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474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236명, 여자가 238명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의 해방전 세대와 해방후 세대가 각각 209명(44.1%), 265명(55.9%)으로 표집되었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356명(78.8%)은 미혼자녀와 생활하는 부부가족이었으며, 96명(21.2%)은 부모(시부모)나 장인장모(친정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7.4%가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동거한 적이 있는 반면, 52.6%는 함께 생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조모와 함께 산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중에 28.7%로 가장 높았으며 친조부(22.8%), 외조모(7.8%), 외조부(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 각각과의 평균 동거 기간을 보면 조모가 14.0년, 조부가 11.0년, 외조모가 8.4년, 외조부가 8.2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장지역은 대도시 출신이 36.5%, 중소도시가 27.4%, 그리고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4\*

변 인	구 분	빈도(%)
성별	남 자	236(49.8)
	여 자	238(50.2)
	전 체	474(100)
연령	35세 미만	140(29.5)
	35-49세	125(26.4)
	50-59세	79(16.7)
	60세 이상	130(27.4)
	전 체	474(100)
가족유형	부부가족	356(78.8)
	확대가족	96(21.2)
	전 체	452(100)
출신지역	대 도시	173(37.3)
	중소도시	130(28.0)
	농 동성부락	65(14.0)
	촌 이성부락	96(20.7)
	전 체	464(100)
(외)조부모와 동거 유무	(외)조부모와 동거 유	220(47.4)
	(외)조부모와 동거 무	191(41.2)
	자주왕래	53(11.4)
	전 체	464(100)
(외)조부모와 동거기간	5년 미만	45(25.6)
	5년- 10년	35(19.9)
	11년 -20년	65(36.9)
	20년 이상	31(17.6)
	전 체	176(100)

\* missing case로 인해 전체 사례수와 차이 있음

동성부락과 이성부락을 합한 농촌출신이 34.0%로 표집되었다.

#### 2. 측정도구

##### 1)부모-자녀관계 속담

본 연구에서는 속담의 인식과 동의정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조복희·이진숙, 1998)에 사용된 95문항의 부모-자녀관계 속담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속담의 9개 하위영역은 자녀의 가치(13문항), 자녀에 대한 애정(14), 남아선호(6문항), 딸에 대한 양가 감정(14문항), 자녀교육의 중요성(5문항), 양육의 어려움(12), 자녀의 부모 동일시(6문항), 절도있는 훈육

(11문항), 효(12문항) 등이다.

질문지 구성은 알고 있는 속담에 대해서만 동의 정도를 묻도록 하였다. 동의 정도는 그 속담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으며 (전혀 동의안함 1점 ~ 매우 동의함 5점), 점수가 높을수록 그 속담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가족환경

가족환경의 변수로는 응답자의 가족유형, 출신지역,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및 동거기간, 가족 및 출신지역의 분위기가 포함되었다. 먼저, 가족의 유형은 배우자와 미혼자녀만으로 구성된 부부가족과 부모와 기혼자녀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확대가족으로 분류하였고, 출신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으며, 농촌지역은 다시 동성부락과 이성부락으로 세분화되었다. (외)조부모와 동거유무는 (외)조부모와 '함께 산적 있다', '함께 산적 없다', 그리고 '함께 산적은 없지만 자주 왕래한다'의 3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동거기간의 년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가 성장한 지역의 분위기와 가족 분위기는 양극단을 '매우 보수적(1점)'과 '매우 근대적(5점)'으로 한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분석시에는 지역의 분위기와 가족의 분위기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 3)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은 가족주의가치와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에 관한 태도로 평가하였다. 먼저, 가족주의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은 옥선화(1989)의 연구에서 발췌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문항에 대한 반응척도는 '대단히 찬성' (1점)에서 '대단히 반대' (5점)로 되어 있으며, 분석시에는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족주의가치는 4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내용은 1문항으로, '대단히 찬성(1점)'과 '대단히 반대(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전반적인 경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찬성', '반대', '찬반미정'의 세차원으로, 속담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두 차원으로 명목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연구 대상자가 응답한 총 95개 문항의 부모-자녀 관계 속담의 평균 동의정도는 2.33에서 4.29로 나타나 대체로 동의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견해는 평균이 11.36(Range= 4-20, SD= 3.94)으로 찬반미정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응답자의 찬반여부(Range= 1-5)는 평균이 2.77(SD= 1.36)로 찬반미정의 의식을 보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서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환경과 부모-자녀관계 속담과의 관계\*

#### 1) 가족유형

가족유형에 따라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공감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가족유형은 자녀에 대한 가치( $t = -2.35, p < .01$ ), 자녀에 대한 애정( $t = 2.90, p < .01$ ), 남아선호( $t = 2.95, p < .01$ ), 딸에 대한 양가감정( $t = -2.70, p < .01$ ) 및 양육의 어려움( $t = 2.86, p < .01$ ) 등의 하위영역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 친(시)부모나 처가(친정) 부모등 부모세대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집단이 부부가족 집단보다 자녀의 가치를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가계의 계승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시되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세대들의 사고나 가치관의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현대에 이르러는 과거 전통시대에 가졌던 아동의 경제적 가치는 차츰 없어지는 반면 아동이 지니는 감정적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어 현대의 가족은 과거 어느때보다 아동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여성한국사



〈표 2〉 가족형태와 속담의 하위영역별 동의정도의 차이

하위 영역	구분	빈도	M(SD)	t값
자녀에 대한 가치	부부가족	151	12.27(2.25)	-2.35**
	확대가족	35	13.46(2.76)	
자녀에 대한 애정	부부가족	121	37.69(4.20)	2.90**
	확대가족	29	35.28(3.99)	
남아선호	부부가족	145	20.06(4.73)	2.95**
	확대가족	33	17.03(5.44)	
딸에 대한 양가 감정	부부가족	143	18.59(3.06)	-2.70**
	확대가족	38	20.11(3.07)	
양육의 어려움	부부가족	152	23.20(3.68)	2.86**
	확대가족	37	21.30(3.62)	

\*\*  $p < .01$ 

회 연구회편, 1998)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서는 부부가족 유형에 속한 집단이 확대가족 유형에 속한 집단보다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부모들은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다 귀엽게 여기며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애정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에 살고 있는 집단에게 더 공감,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핵가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부모보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자 자녀 개개인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증대되면서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더 회생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 탓이라고 고려된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음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보살핌이나 기대는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한다(김양희, 1993)

부부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남아선호적인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더 많이 소유한 부모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유형의 성원들이 남아를 더 선호하고 존중하는 전통적 가치에 지배되리라는 예측을 벗어나 오히려 부부가족 중심의 집단이 남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확대가족의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가

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로 핵가족 유형에 속한 부모들이 보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전통적인 가치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족 구조의 변화가 자녀에 대한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근대화로 인해 가족형태는 표면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체계는 여전히 전근대적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부부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더 높은 동의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확대가족의 경우, (외)조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에 참여하고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훈육, 보호 등의 역할 등을 담당해 왔는데(김태현, 1995) 핵가족 형태에 살고있는 부모들은 풍부한 육아경험과 경륜을 갖춘 조부모나 친족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부모가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녀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주는 충고는 때로 서로 모순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자신을 잃고 당황하기 쉽다고 한다(조형, 1988).

가족유형과는 별도로 특히 남아에 대한 선호사상

이나, 딸에 대한 감정, 자녀의 가치나 애정등은 부모자신의 형제의 성구성이나 자녀의 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된다. 예를 들어 아들만 있는 가정은 좀 더 보수적이며 딸만 둔 가정은 여아와 남아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며,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만 자란 어머니는 딸에 대한 감정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는 남녀를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덜 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개인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가정 및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식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응답자의 자녀 구성에 따라 아들만 있는 집단, 딸만 있는 집단, 아들·딸이 있는 3집단으로 구분하여 남아선호사상과 딸에 대한 감정, 자녀의 가치와 애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자녀의 가치영역( $F = 6.26, p < .01$ )을 제외하고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아들·딸에 대한 선호나 애정은 부모자신의 자녀의 구성과 관련이 없으나, 자녀의 가치는 그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만 둔 집단이 아들만 있거나 아들·딸이 있는 집단에 비해 자녀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와, 자녀에 대한 가치와 만족을 크게 두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역할만족도가 딸만 있는 경우에 높은 것으로 보고한 조복희·현은강(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본다. 또한, 부모자신의 형제의 구성에 따라 남자형제 집단, 여자형제 집단, 남·녀형제로 구성된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아 아들·딸에 대한 가치는 응답자 자신의 형제 구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조부모와 동거유무 및 동거기간

현대에 이르러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가족개념의 변화 등의 요인들로 소원하게 되었는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와 동거기간에 따라 부모자녀관련 속담에 내포된 전통적인 가치의 수용정도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외)조부모와 동거유무는 효의 실천과 권면의 영역( $t = -2.79, p < .01$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동거기간은 자녀의 가치( $r = -.50, p < .05$ )와 절도있는 훈육( $r = .45, p < .05$ )의 영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듯이 (외)조부모와 동거한 적이 있는 집단이 효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다.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효에 관련된 속담에 더 높게 동의하는 것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가 절대적으로 지지되는 규범속에서 살아왔던 (외)조부모 세대로부터 효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류점숙(1995)이 지적한대로 부모가 (외)조부모를 받들며 화목하게 생활하고 (외)조부모의 동거로 집안에 일가·친척 등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외)조부모를 따라 집안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손자녀들은 은연중에 인간의 정과 효행을 배우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같이 효행은 반드시 모델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배운 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외)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은 자녀의 가치와는 부적상관이, 절도있는 훈육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외)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길수록 자녀의 가치를 낮게 보며 엄격하고 권위적인 훈육 방식을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조부모

<표 3> (외)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와 속담의 하위영역별 동의정도의 차이

하위영역	구분	빈도	M(SD)	t값
효	(외)조부모와 동거 무	75	31.21(3.65)	-2.79**
	(외)조부모와 동거 유	56	32.82(2.95)	

\*\*  $p < .01$

와 오래 함께 생활한 사람일수록 엄격한 훈육에 동감하는 것은, 과보호적이고 허용적인 양육방식으로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현대의 부모와는 달리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 버린다”는 교훈아래 때로는 체벌도 정당화된 전통시대를 살아온 (외)조부모의 훈육 철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 출신지역과 가족 및 출신지역의 분위기

출신지역과 가족의 분위기 및 출신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도시와 농촌간은 남아선호사상(F= 9.13, p< .001), 딸에 대한 양가감정(F= 4.37, p< .05) 및 절도있는 훈육영역(F= 5.81, p<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중에서도 동성부락과 이성부락간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4>에서 시사하듯이 남아에 대한 선호의식은 성장지 배경이 도시에 비해 농촌인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전통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분위의 경제체제는 노동력의 증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다산과 다남의 가치가 선호되었는데(유혜령, 1993), 산업사회에서도 농업이라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촌가족의 지역적 특성이 남성우위의 성별 차등가치관을

강화시켰으리라고 짐작된다. 남아와는 달리 딸에 대한 양가감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성장배경이 도시지역인 경우, 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성이 많이 남아있는 농촌에 비해 근대화가 빨리 진행된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다소 당연한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절도있고 엄격한 훈육방식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응답자에게 더 지지되는 것은 농촌가족에서 성장한 응답자가 보다 전통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지나친 사랑이 도리어 자녀의 행실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고 권위적인 훈육방식에 공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전통적인 요인이 도시보다 농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지역의 분위기에 따른 속담의 하위영역별의 동의정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들의 가족과 출신지역의 분위기는 평균이 5.30 (Range= 2-10, SD= 1.91)으로 그 정도가 보수적과 근대적의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역의 분위기는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가족과 지역의 분위기는 대도

<표 4> 출신지역과 속담의 하위영역별 동의정도의 차이

하위 영역	구분	빈도	M(SD)	F값	D
남아선호	대 도시	56	17.38(5.18)	9.13***	a
	중소 도시	60	19.35(4.06)		b
	농 촌	71	21.08(5.20)		c
	합 계	187	19.42(5.07)		
딸에 대한 양가 감정	대 도시	56	19.73(3.18)	4.37*	a
	중소 도시	58	19.03(2.87)		ab
	농 촌	75	18.16(3.08)		b
	합 계	189	18.89(3.10)		
절도있는 훈육	대 도시	77	20.06(4.37)	5.81**	a
	중소 도시	67	21.07(4.85)		ab
	농 촌	82	22.50(4.40)		b
	합 계	226	21.25(4.62)		

D: Duncan Multiple Range Test \* p< .05 \*\* p< .01 \*\*\* p< .001

시, 중소도시, 농촌간에 차이가 났으며( $F = 80.19, p < .001$ ),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동성부락과 이성부락간에도 차이( $t = -2.83, p < .01$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예측할 수 있듯이 대도시에서 성장한 응답자가 지역과 가족의 분위기가 가장 근대적이라고 보고한 반면, 동성부락에서 성장한 자가 가장 전통적이었다고 응답했다.

가족 및 지역의 분위기와 속담의 하위 영역별간의 상관관계는 자녀에 대한 애정( $r = -.38, p < .05$ )과 남아선호가치( $r = -.37, p < .05$ )에서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한 가족과 지역의 분위기가 매우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라고 보고한 사람일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헌신에, 남아선호의식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응답자가 보다 전통적인 사고체계를 수용하고 있어 남녀 차별적인 규범을 지지하고 자녀에 대한 맹목적 애정과 사랑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속담을 통해서 본 부모-자녀관계의 전통적 가치의 수용 정도는 가족환경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이 복합적으로 각 하위영역의 동의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 2. 가족가치관과 부모-자녀관계 속담과의 관계

### 1) 가족주의가치

현대인에게 가족주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이 내재되어 있는 부모-자녀관계 속담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가족주의 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가족주의가치의 평균이 11.36(Range = 4-20, SD = 3.94)으로 찬반미정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주의가치에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 $r = .54, p < .01$ )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

의가치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송애·조병은, 1991; 옥선화, 1989)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주의가치는 성장지의 출신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F = 23.50,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옥선화, 1989, 1990; 최정혜, 1997). 그러나 동성부락과 이성부락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과 지역분위기를 합산한 총점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각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발견되었다. 즉 응답자가 보고한 성장지역의 분위기( $r = -.30, p < .05$ )와 가족분위기( $r = -.22, p < .05$ )와 낮은 부적상관을 보여주어, 전통적인 지역분위기에서나 혹은 보수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자일수록 가족주의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주의가치는 (외)조부모와 동거유무 자체와는 차이가 없지만 동거기간( $F = 2.66, p < .05$ )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조부모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가족주의가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아들만 있거나 아들·딸이 있는 가정이 딸만 둔 가정에 비해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F = 8.50, p < .001$ ).

속담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주의가치와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자녀의 가치( $r = -.33, p < .05$ )와 딸에 대한 양가감정과는 부적상관( $r = -.58, p < .01$ )을, 자녀에 대한 애정( $r = .47, p < .01$ ), 남아선호( $r = .65, p < .01$ ), 양육의 어려움( $r = .48, p < .01$ ), 자녀의 부모 동일시( $r = .34, p < .05$ ) 및 효의 권면과 실천 영역( $r = .34, p < .05$ )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도 남아선호영역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딸에 대한 양가감정도 높은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에 가치를 두며 남아 선호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가치는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부계를

〈표 5〉 가족주의가치와 속담의 하위영역별 동의와의 상관관계

하위영역	가족주의 가치 <sup>a</sup>
자녀의 가치	-.33*
자녀에 대한 애정	.47**
남아 선호	.65**
딸에 대한 양가 감정	-.58**
자녀교육의 중요성	.18
양육의 어려움	.48**
자녀의 부모 동일시	.34*
절도있는 훈육	.23
효	.34*

a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함

\* p < .05 \*\* p < .01

특히 중요시하며 가문의 영속화를 기대하는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남아를 가치롭게 여기며 상대적으로 딸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가치의 근본이념은 부모에 대한 효의 원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 또한 당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가치와 효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최정혜, 1997)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한편, 가족주의 사고를 지닐수록 전통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한 방법적인 원리인 시범과 모방에 대해 높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많은 노고와 애로를 겪는다는데 더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주의가치관과 속담의 동의정도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변수에 따른 상이한 유형이 드러났다. 먼저,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와 효의 가치와 엄격한 훈육에 대한 동의도와와 정적상관은 남자 응답자에서만 나타났으며,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의 정적상관은 여자 응답자에서만 나타났다. 특히, 남아선호와 가족주의가치와의 상관계수가 남자집단( $r = .79$ )에서 여자집단( $r = .53$ )보다 높게 나와 남자가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할수록 남아를 선호하는 정도

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히 남아에 대한 선호도와 가족주의가치와의 상관은 해방후 세대보다 해방전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이 고졸이상인 집단에서만 가족주의가치와 남아선호와와 정적상관이, 딸의 양가감정과와 부적상관이 발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족주의가치와 효,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 부모의 동일시영역과의 정적상관이 응답자의 성장지가 농촌인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 2) 동성동본불혼

동성동본 혼인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동성동본불혼의 찬반정도에 따라 부모-자녀관련 속담의 동의정도는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에 관한 응답자의 찬반여부(Range = 1-5)는 평균이 2.77(SD = 1.36)로 찬반미정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의 44.6%가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고 33.8%가 반대하며 21.7%가 찬반미정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전체 남자응답자의 46.6%와 전체 여자응답자의 42.6%가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여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해방전 세대(59.1%)가 해방후 세대(33.3%)보다 동성동본의 불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세대에 따른 결혼관행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가족유형별로 볼 때, 확대가족 집단중에서 34.7%가, 부부가족 집단에서는 47.0%가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가족 유형의 응답자가 동성동본의 불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응답자중 40.8%가, 그들과 동거한 적이 없는 집단중에서는 47.0%가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조부모와의 동거기간과 살펴보면, (외)조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5년미만인 대상에서 36.4%가, 5년에서 10년 미만인 대상에서 42.9%,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대상에서는 38.5%가 20년 이상인 대상에서는 45.2%가 동성동본의 불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장지역에서는 대도시 출신자중 28.5%가, 중소도시 출신자중 50.8%가 그리고

농촌출신자중 56.3%가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의사를 보여주어 출신지역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중에서 동성부락 출신(56.9%)과 이성부락 출신(55.1%)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간에 성장가족 및 지역의 분위기에는 차이가 발견되어( $t = -4.70, p < .001$ ),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장시 환경의 분위기가 더 근대적이라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가치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t = -11.22, p < .001$ ), 동성동본의 혼인을 반대하는 사람이 역시 가족주의가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에 관한 태도와 속담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먼저,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경우가 반대하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애정( $t = 2.30, p < .05$ ), 남아선호사상( $t = 5.54, p < .001$ ), 양육의 어려움( $t = 2.04, p < .05$ ), 부모의 동일시( $t = 3.88, t = 3.88, p < .001$ ), 절도있는 훈육( $t = 3.94, p < .001$ )과 효( $t = 2.65, p < .01$ )의 영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동성동본불혼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자녀의 가치( $t = -3.64, p < .001$ )와 딸에 대한 양가감정( $t = -2.68, p < .01$ )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찬반여부가 속담의 하위영역별에 대한 동의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집단이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아를 더 가치롭게 여기며 딸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낮아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동성동본불혼제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부계 가족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인 실효성이 낮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통적 가족규범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

〈표 6〉 동성동본불혼의 찬반정도와 속담의 하위영역별 동의정도의 차이

하위 영역	구분	빈도	M(SD)	t값
자녀의 가치	찬 성	93	11.77(2.52)	-3.46***
	반 대	56	13.09(2.07)	
자녀에 대한 애정	찬 성	71	38.11(4.14)	2.30*
	반 대	49	36.31(4.27)	
남아선호	찬 성	92	21.10(5.28)	5.54***
	반 대	53	16.74(4.10)	
딸에 대한 양가감정	찬 성	89	18.30(2.77)	-2.68**
	반 대	58	19.74(3.42)	
양육의 어려움	찬 성	106	23.29(3.99)	2.04*
	반 대	60	22.08(3.48)	
부모의 동일시	찬 성	102	12.15(1.99)	3.88***
	반 대	73	11.05(1.72)	
절도있는 훈육	찬 성	107	22.38(4.74)	3.94***
	반 대	70	19.70(4.21)	
효	찬 성	75	32.52(2.99)	2.65**
	반 대	45	30.71(3.98)	

\*  $p < .05$  \*\*  $P < .01$  \*\*\*  $p < .001$

계혈통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지속이 남성중심의 가족윤리를 강화시켜 여성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가족내 양성평등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지적된다(이재경, 1995). 또한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집단이 생활에 필요한 예의와 법도를 엄격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절도있는 훈육방식에 더 높게 동의하며, 전통가족에서 자녀의 사회화의 기능으로 수행되었던 부모의 동일시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속담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효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서 동성동본불혼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는 부모-자녀관계에 포함된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도 보다 더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동의정도가 가족환경변수와 가족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추후분석으로, 속담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환경변인 및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효에는 가족주의가치( $\beta=.35$ ), 조부모와 동거유무( $\beta=.28$ ), 연령( $\beta=.19$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 $r^2$ )은 27%였다.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할수록, 조부모와 동거한 적이 있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남아선호사상에는 가족주의가치( $\beta=.52$ ), 연령( $\beta=.19$ ), 가족과 지역의 분위기( $\beta=-.18$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50%였다. 즉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과 지역의 분위기가 보수적일수록 남아를 가치롭게 여기고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딸에 대한 양가감정에 대해서는 가족주의가치( $\beta=-.39$ ), 성별( $\beta=-.1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가치를 반대할수록 그리고 성별이 여자인 경우, 딸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제외한 기타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민중속에서 생성, 성장, 소멸하는 속담은 그 민족의 풍속, 사상, 신앙 및 생활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인 가치가 반영된 속담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꾸준히 사용되거나 그 내용이 동의되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상반된 가치를 반영하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수용은 각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물리적 환경에 따라 혹은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속담에 대한 공감정도가 가족환경과 가족주의 가치관과 어느정도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현대인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인 속담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사고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자녀관계를 내포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를 가족환경과 가족가치관 변수에 따라 분석하여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확대가족의 유형에 속하거나 딸만 둔 가정에서, 가족주의가치와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을 반대하는 집단이 자녀를 더 가치롭게 여기며, 부부가족 유형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며 보수적인 가족분위기와 전통적인 지역환경에서 자란 응답자가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속담에 가치를 높게 두었다. 부부가족 유형이, 농촌출신이 그리고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남아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한 남아선호적인 의식이 높았다. 딸에 대한 양가감정에서는 부모세대와 함께 살거나, 도시가족 출신이 가족중심주의와 동성동본의 혼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교육의 중요성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변수와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모의 자녀 동일시를 반영하는 속담은 가족가치관 변수와의 관계

에서만 차이를 보여주었다. 엄격하고 통제된 양육방식은 농촌지역 출신이거나 조부모와 함께 오래 살았던 경우에 또한 동성동본의 혼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더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와 미혼자녀세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자녀 양육의 수고로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일인 효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된다는 전통교육을 받은 (외)조부모세대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거나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동성동본혼을 찬성하는 응답자가 효의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첫째, 가족유형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의 수용과 변화를 파악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함께 기거하는 확대가족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과거 유교시대를 살아온 부모세대들의 영향을 받아 보다 전통적인 사고체계를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부부가족의 집단이 오히려 남아를 더 선호하고 딸에 대한 가치가 낮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업화와 서구문화의 도입과 더불어 변한 가족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가치롭게 인정하고 선호하는 전통적 자녀가치가 우리 부모의 사고와 심층심리에 여전히 깊이 자리하고 있기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상 자녀수는 줄어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선호관은 더욱 강화되어 오늘날 신생아에 대한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조복희·이진숙, 1998)에 의하면,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아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고 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변화가 일반화된다면 남아선호사상과 이에서 비롯되는 성비의 불균형상태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응답자의 성장지역은 부모-자녀관계내에서 전통적 가치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가족은 도시가족에 비해 아직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로 외형적인 생활양식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의 폭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내 가치관의 변화가 산업화에 따르는 가족생활의 외형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다같이 한 국민의 가족이면서도 농촌가족은 도시가족에 비하여 전통적인 가치규범이 더 많이 보존되어 있는 반면 도시가족이 농촌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근대적인 의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외)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효의 권면 등 소수의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시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손자녀의 전통적 가치의 수용 정도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의 방법상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가족의 현실이 가족주조적인 면에서 핵가족이나 기능적인면에서 확대가족의 세대원리가 강하게 적용됨으로써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손자녀-조부모의 상호작용 및 상호유대가 강하기 때문에(민하영·유안진, 1996), 비록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조부모와의 관계는 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자체보다는 조부모와의 질적인 관계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조부모의 영향력이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개인적인 심리적인 특성으로서의 가족주의가치와 동성동본혼에 대한 태도는 부모-자녀관계 속담에서 내재된 전통적 가치의 수용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동성동본의 혼인을 반대하는 가치관념을 가진 집단은 역시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보다 더 전통적 가치를 간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특히 부모세대에서 뚜렷한 반면, 연령이 낮은 세대에서는 가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며, 동성동본의 혼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가족내 세대간의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고려된다. 따라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할상이 정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의 동의 정도는 어떠한 변수와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자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우리사회의 가치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중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은 돈이 아닌 학식과 덕행임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이는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와 생활을 주기 위함이고 가문의 영속적 번영을 기원하는 가부장제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열의가 우리의 교육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입신양명의 수단과 도구로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온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의식과 의지가 지나쳐 사회병폐적인 문제로까지 야기시키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만연된 과열경쟁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부모의 위신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족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부모-자녀관계 속담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감되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역할변화,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족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서구가치의 무분별한 도입속에 여전히 우리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통적 가치의 혼재로 인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고,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 있어 그 역할 적응상의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한국적 부모역할관 형성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1) 김송애,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2)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3) 김태곤 외 6인(1996). 한국 구비문학 개론. 서울: 민속원.  
 4) 김태현(1995). 가족원간의 기능. 가족학논집, 7집, 257-292.  
 5) 류점숙(1995). 조선시대 아동 효행교육의 현대적 의미. 1995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47-62.  
 6) 민하영, 유안진(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279-293.  
 7) 서동인(1996).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 및 중재에 관한 연구: 10대 자녀를 둔 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53-166.  
 8)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1998).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9)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_\_\_\_\_(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61-170.  
 11) 유안진(1990). 한국전통 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2) \_\_\_\_\_(1995). 아동양육. 서울: 문음사.  
 13) 유혜령(1993).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 이광규(1983).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5) 이기문(1986). 속담사전(개정판). 서울: 일조각.  
 16) 이재경(1995). 가족법상의 가족개념과 여성학적 대안. 가족학논집, 7집, 127-154.  
 17) 장덕순 외 3인(1971).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18) 조복희,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한국아동학회지, 19(1). 5-26.  
 19) 조복희, 현은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08.

- 20) 조 형(1988). 어머니는 왜 자신없어 하는가. 또한 나의 문화. 서울: 평민사. 문화연구원.
- 21)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양의식. 대안가정학회지, 35(6), 55-69.
-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서울: 한국정신
- 23) 한남제(1984). 한국 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24) \_\_\_\_\_(1994).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다산출판사.